

독신가구: 그 경제생활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심 영(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교수)

I. 서론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의 사회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 등의 변화로 인한 독신가구의 증가는 단지 독신가구를 형성하는 개인의 삶의 차원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가구형태로서 하위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생활은 가구의 생활문화 실태 및 복지정도를 파악하는 하나의 측면으로, 그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독신가구 생활문화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활의 단면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30대와 40대로서 일인으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의 현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관련 자료의 고찰

가계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소득, 자산 및 부채, 소비지출로 구성된다. 따라서 가구의 경제생활 분석은 크게 소득과 소비지출상태의 분석과 자산상태의 분석을 포함한다. 소득과 소비지출은 일정 기간동안의 자원의 유동적 흐름(flow)을 보여주며, 이와는 달리 자산상태는 한 시점에서 축적된 자원의 상태(stock)를 보여준다(이승신·김기옥·김경자·심영·정순희, 1996). 이러한 자료들은 가계가 경험하게 되는 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가늠케 하여 주는 자료이며 또한 경제상태의 향상 및 안정성 여부를 알려주는 자료로 활용된다.

가구유형은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경제 자원의 규모 및 종류를 결정하며 소비지출에

대한 필요수준과 욕구 등에 의해 가구의 소비지출규모 및 패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질 것이다(여운경·양세정, 2001). 이는 결과적으로 가구의 소득, 자산 및 부채, 그리고 소비지출 규모와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1인 독신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경제생활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1996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통계청, 1998)의 자료를 토대로 30대, 40대 독신가구의 소득, 자산 및 소비지출상태를 고찰하고, 이를 1인 가구 및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 자산 및 소비지출상태와 비교하였다.

〈표 1〉 30대, 40대 독신가구의 소득

(단위: 천원, %)

	30대 가구		40대 가구		1인 가구 ¹⁾		2인 이상 가구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소득	1246.8	100.0	1134.4	100.0	1073.4	100.0	1970.1	100.0
근로소득	1165.4	93.5	1018.9	89.8	986.2	91.9	1694.7	86.0
사업 및 부업소득	6.5	0.5	2.2	0.2	4.4	0.4	83.1	4.2
재산소득	6.9	0.6	8.2	0.7	5.1	0.5	45.4	2.3
이전소득	33.8	2.7	77.5	6.8	28.9	2.7	51.8	2.6
기타소득	34.2	2.7	27.5	2.4	48.7	4.5	95.1	4.9

1) 1인 가구는 30대, 40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1인 가구를 모두 포함.

30대, 40대 독신가구는 전체 일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지만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았다. 소득의 유형에 따른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경향을 보면, 30대 독신가구는 40대 독신가구에 비해 근로소득이 비중을 많은 차지하였고, 40대 독신가구는 30대 독신가구에 비해 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였다. 30대, 40대 독신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사업 및 부업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2>는 30, 40대 독신가구의 저축 및 부채 보유 실태이다. 약간의 차이이지만 30대, 40대 독신가구는 전체 일인가구에 비해 저축비율이 높지만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낮았다. 30대와 40대를 비교하면, 40대 독신가구는 30대 독신가구에 비해 저축률이 훨씬 낮았다. 그러나 저축보유액은 30대 일인가구에 비해 40대 일인가구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은행권 저축보유액이 보험권 저축보유액보다 많았다. 30대 독신가구는 은행권과 보험권 저축보유

액이 40대 독신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40대 독신가구는 기타 금융권에서의 저축보유액이 30대 독신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일인가구의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2인 이상의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 일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평균 비율보다 30대, 40대의 부채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독신가구는 30대 독신가구에 비해 부채보유비율과 부채액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 40대 독신가구는 전체 일인가구나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외식비, 주거비, 피복비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30대, 40대 독신가구는 다른 연령의 독신가구나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가구 및 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낮았다.

〈표 2〉 30대, 40대 독신가구의 저축 및 부채 보유실태

(단위: 천원)

	30대 가구	40대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저축가구비율(%)	97.4	89.1	92.2	98.2
저축보유액	12196.7	14000.6	8955.5	18,323.7
은행권	6509.2	5571.1	5236.4	9084.2
보험권	1898.0	963.9	987.0	3018.4
기타 금융권	3789.5	7465.6	2732.1	6221.2
부채보유가구비율(%)	38.6	41.0	37.8	66.5
부채액	1775.2	2480.2	1597.0	7163.3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30대, 40대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 중 경제생활 분야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을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소득 측면은 소득 규모와 소득충분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자산 측면은 저축행동, 부채유무와 부채이유, 자산관리 및 노후경제준비, 소비지출 측면은 소비지출규모의 대리변수로 월평균 생활비와 소비지출패턴을 파악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독신으로서 생활하기에 전반적으로 소비생활이 어느 정도 편리한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연령, 성, 학력은 가구의 경제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주요 변수이므로, 이에 따른 독신가구의 경제생활 경향을 분석하였다.

〈표 3〉 30대, 40대 독신가구의 소비지출 규모 및 패턴

(단위: 천원, %)

	30대 가구		40대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가계지출	822.3		777.5		717.1		1,496.6	
소비지출	700.7	100	601.7	100	610.9	100	1,301.1	100.0
식료품	185.9	26.5	185.6	30.8	168.1	27.5	353.6	27.2
외식	103.6	14.8	73.3	12.2	75.0	12.3	111.6	8.6
주거	71.4	10.2	71.5	11.9	57.7	9.4	46.0	3.5
광열·수도	31.6	4.5	44.8	7.4	36.7	6.0	62.3	4.8
가구가사용품	18.4	2.6	20.8	3.5	26.1	4.3	57.8	4.4
피복·신발	97.2	13.9	58.4	9.7	71.2	11.7	111.5	8.6
보건의료	21.1	3.0	24.7	4.1	26.7	4.4	63.0	4.8
교육	0.7	0.1	1.5	0.2	0.9	14.7	114.2	8.8
교양·오락	44.4	6.3	18.1	3.0	38.2	6.3	62.2	4.8
교통	73.3	10.5	48.5	8.1	48.8	8.0	128.3	9.9
통신	19.6	2.8	19.9	3.3	18.7	3.1	29.5	2.3
기타	137.0	19.6	107.9	17.9	118.0	19.3	272.7	21.0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독신가구의 소득

소득규모는 조사대상 독신가구의 30.8%가 150 - 200만원 미만의 소득규모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20.8%), 100만원 - 150만원 미만(19.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러한 소득규모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통계청, 2002)의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2,413,500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일인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은 2인 이상으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구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다(변화순·송다영·김영란, 2001)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별 경향을 보면, 30대, 40대 독신가구 모두 150만원 - 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0대 독신가구와 40대 독신가구를 비교하여 보면, 30대 독신가구는 32.8%가 월평균 소득이 150 - 200만원 미만의 소득규모를 갖는 것으로 40대 독신가구(24.3%)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30대 독신가구는 44.3%가 150만원 미만의 소득규모로 40대 독신가구(27%)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40대 독신가구는 37.2%가 250만원 이상의 소득규모를 나타내 30대 독신가구(9.0%)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다는 연령과 소득의 정적인 관계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성별 경향을 보면, 남성 독신가구는 150 - 200만원 미만(42.3%), 여성 독신가구는 100만원 미만(24.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성 독신가구와 남성 독신가구를 비교하여 보면, 남성이구는 56.4%가 150 - 250만원 미만의 소득규모로 여성가구(32.1%)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여성가구는 48.2%가 150만원 미만의 소득규모로 남성이구(32.1%)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구가 남성이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여성가구는 19.2%가 250만원 이상의 소득규모로 남성이구(11.5%)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과적으로 남성 독신가구는 중간 계층의 소득규모에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여성 독신가구는 낮은 계층의 소득규모와 높은 계층의 소득규모에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40대에 많은 여성 독신가구가 존재한다¹⁾는 사실과 함께 250만원 이상의 소득규모를 가진 비율이 남성 독신가구 비율보다 많다는 분석결과는 경제력이 있는 여성이 독신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지속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력별 경향을 보면, 고졸 독신가구와 대졸 독신가구는 150만원 - 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41.7%, 37.8%)을 차지하였다. 대학원 이상 독신가구는 100만원 미만이 26.5%로, 이처럼 고학력임에도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고급인력의 비취업 현상에 의한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250만원 이상의 소득규모에서는 대졸 독신가구가 10.2%로 고졸 가구(25%)나 대학원 이상 가구(24.4%)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득충분 인식도는 조사대상 독신가구의 46.5%가 그저 그렇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충분하다(27.0%)고 하였다. 그러나 부족하다와 매우 부족하다로 응답한 독신가구도 22%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연령별 경향을 보면, 30대 독신가구는 52.0%가 그저 그렇다, 40대 독신가구는 44.4%로 충분하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0대 독신가구와 40대 독신가구를 비교하여 보면, 30대 독신가구는 24.4%가 매우 충분하다와 충분하다로 40대 독신가구(55.5%)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경향이였다. 게다가 30대 독신가구는 23.5%가 부족하다와 매우 부족하다로 40대 독신가구(16.6%)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인 소득규모가 소득이 충분한가라는 주관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즉, 30대 독신가구가 40대 독신가구에 비해 실질적으로 낮은 경제상황에 있음이 주관적 인식에서도 드러남을 알 수 있다.

1) 조사대상 독신가구를 연령과 성으로 교차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자 30대 독신은 88.5%, 여자 30대 독신은 65.9%, 남자 40대 독신은 11.5%, 여자 40대 독신은 34.1%로 30대는 남자 독신, 40대는 여자 독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 연령별, 성별, 학력별 독신가구의 소득

(명, %)

구 분		전체 가구		30대 가구		40대 가구		남성 가구		여성 가구		고졸 가구		대졸 가구		대학원 이상 가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33	20.8	29	23.8	4	10.8	13	16.7	20	24.7	1	8.3	19	19.4	13	26.5
	100~150만원 미만	31	19.5	25	20.5	6	16.2	12	15.4	19	23.5	3	25.0	22	22.4	6	12.2
	150~200만원 미만	49	30.8	40	32.8	9	24.3	33	42.3	16	19.8	5	41.7	37	37.8	7	14.3
	200~250만원 미만	21	13.2	17	13.9	4	10.8	11	14.1	10	12.3	0	0	10	10.2	11	22.4
	250~300만원 미만	15	9.4	7	5.7	8	21.0	5	6.4	10	12.3	1	8.3	8	8.2	6	12.2
	300만원 이상	10	6.3	4	3.3	6	16.2	4	5.1	6	7.4	2	16.7	2	2.0	6	12.2
	계	159	100.0	122	100.0	37	100.0	78	100.0	81	100.0	12	100.0	98	100.0	49	100.0
소득 충분	매우 충분하다	7	4.4	3	2.4	4	11.1	3	3.8	4	4.9	1	8.3	2	2.0	4	8.2
	충분하다	43	27.0	27	22.0	16	44.4	18	23.1	25	30.9	4	33.3	22	22.4	17	34.7
	그저 그렇다	74	46.5	64	52.0	10	27.8	41	52.6	33	40.7	4	33.3	54	55.1	16	32.7
	부족하다	29	18.2	26	21.1	3	8.3	14	17.9	15	18.5	3	25.0	18	18.4	8	16.3
	매우 부족하다	6	3.8	3	2.4	3	8.3	2	2.6	4	4.9	0	0	2	2.0	4	8.2
	계	159	100.0	123	100.0	36	100.0	78	100.0	81	100.0	12	100.0	98	100.0	49	100.0

성별 경향을 보면, 여성 독신가구는 35.8%가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로 남성 독신가구(26.9%)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또한 여성 독신가구는 23.4%가 부족 혹은 매우 부족하다로 남성 독신가구 (20.5%)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실질적 소득수준이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 독신가구의 경제수준이 양측(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즉, 경제력이 있거나 부족한 여성 독신가구로 인해서임을 알 수 있다.

학력별 경향을 보면, 대졸 독신가구에 비해 고졸 독신가구와 대학원 이상 독신가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실질적인 소득규모의 영향으로 설명 가능하다.

2. 독신가구의 자산

독신가구의 자산은 저축을 하는가의 행동, 부채유무, 부채를 진 이유, 자산관리에 관하여 파악하였으며, 자산관리는 자산관리 주체와 노후경제 준비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저축행동은 조사대상 독신가구의 70.6%가 저축을 하는 반면에 29.4%가 저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러한 결과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보여준 저축가구비율(93.3%)보다 훨씬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선적으로는 소득규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소득규모에 의한 것인지, 혹은 현재지향적 소비성향에 의한

것인지 등 그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파악되어져야 할 것이다.

연령별 경향을 보면, 30대 독신가구는 67.5%, 40대 독신가구는 81.1%가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신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저축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별에 따른 저축행동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학력별 저축행동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독신가구(40.8%)가 고졸(25.0%)이나 대졸(24.2%)의 독신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채유무는 조사대상 독신가구의 35.8%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연령별 경향을 보면, 30대 독신가구(33.0%)보다 40대 독신가구(43.2%)가 부채를 지고 있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의 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40대 일인가구가 30대 일인가구에 비해 빚을 갚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200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성별 경향을 보면, 남성 독신가구(39.7%)가 여성 독신가구(3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가 있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경향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부채를 지는 비율이 적어지는 경향으로, 이러한 학력과 부채와의 부적인 모습은 학력과 소득과의 일반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저학력 가구에서의 부채상환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채를 지는 이유는 조사대상 독신가구의 30.6%가 주택마련비용으로 인해서였고, 그 다음으로 카드과다사용(22.6%)의 순이었다(<표 5> 참조). 이러한 결과는 독신가구에서도 우리 사회의 일반 가구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는 주택소유 선호성향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게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응답에 의하면, 조사대상 독신가구의 74.8%가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22.6%가 전세, 약 2.5%만이 월세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독신가구라 할지라도 우리 나라 사람들은 주택소유를 선호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카드사용으로 인한 부채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9% 정도로 일반 가계대출 연체율(평균 2.5%)보다 훨씬 높다(선우정·박용근, 2002). 연체율이 높은 것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또한 이들에 의한 카드과다사용으로 그 원인을 찾는다면, 건전한 카드사용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령별 경향을 보면, 30대 독신가구는 28.9%가 카드과다사용으로 인해 빚을 지는 것으로 40대 독신가구(5.9%)에 비해 카드과다사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40대보다 30대가 아직은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보여주

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30대 독신이 40대 독신에 비해 작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또한 소비지출을 계획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계획적으로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이는 것과 함께 30대 독신가구에 대한 소비자 경제생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30대 독신가구는 11.1%가 생계유지를 위해 빚을 지는 것으로 40대 독신가구(5.9%)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40대 독신에 비해 30대 독신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30대 독신가구의 카드과다사용과 더불어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즉,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30대 독신가구의 카드과다사용은 자칫 신용불량자 나아가 개인파산자로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카드사용의 홍보 및 소비자 경제교육, 재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30대 독신가구는 28.9%가 주택마련비용으로 부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40대 독신가구(35.3%)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본 연구의 조사에서 40대 독신가구(86.5%)가 30대 독신가구(71.3%)에 비해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30대 독신가구는 40대 독신가구에 비해 전세나 월세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결과를 볼 때 주택마련비용을 위한 40대 독신가구의 부채 이용은 그 설명이 가능하다.

〈표 5〉 연령별, 성별, 학력별 독신가구의 저축 및 부채

(명, %)

구 분		전체 가구		30대 가구		40대 가구		남성 가구		여성 가구		고졸 가구		대졸 가구		대학원 이상 가구	
저 축 동	합	113	70.6	83	67.5	30	81.1	55	70.4	58	70.7	9	75.0	75	75.8	29	59.2
	없음	47	29.4	40	32.5	7	18.9	23	29.5	24	29.3	3	25.0	24	24.2	20	40.8
	계	160	100.0	123	100.0	37	100.0	78	100.0	82	100.0	12	100.0	99	100.0	49	100.0
부 채 유 무	있음	57	35.8	41	33.0	16	43.2	31	39.7	26	32.1	7	58.3	36	36.4	14	29.2
	없음	102	64.2	81	66.4	21	56.8	47	60.3	55	67.9	5	41.7	63	63.6	34	70.8
	계	159	100.0	122	100.0	37	100.0	78	100.0	81	100.0	12	100.0	99	100.0	48	100.0
부 채 이 유	카드과다사용	14	22.6	13	28.9	1	5.9	10	30.3	4	13.8	1	14.3	11	29.7	2	11.1
	생계유지	6	9.7	5	11.1	1	5.9	2	6.1	4	13.8	0	0	2	5.4	4	22.2
	주택마련비용	19	30.6	13	28.9	6	35.3	9	27.3	10	34.5	2	28.6	9	24.3	8	44.4
	사업자금	8	12.9	4	8.9	4	23.5	2	6.1	6	20.7	3	42.9	4	10.8	1	5.6
	주식투자	2	3.2	1	2.2	1	5.9	2	6.1	0	0	0	0	2	5.4	0	0
	기타	13	21.0	9	20.0	4	23.5	8	24.2	5	17.2	1	14.3	9	24.3	3	16.7
	계	62	100.0	45	100.0	17	100.0	33	100.0	29	100.0	7	100.0	37	100.0	18	100.0

성별 경향을 보면, 남성 독신가구는 30.3%가 카드과다사용으로 여성 독신가구(13.8%)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지출을 계획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 분석에 의하면 남성 독신가구(28.2%)가 무계획적 소비지출로 여성 독신가구(22.0%)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반면에 여성 독신가구(30.4%)가 계획적으로 남성 독신가구(23.1%)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남성 독신가구는 89.6%가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고 여성 독신가구(70.0%)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남성 독신가구의 카드과다사용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으며, 남성 독신가구의 증가 추세와 함께 소비자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력별 경향을 보면, 고졸 독신가구는 42.9%가 사업자금을 위해 부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졸 독신가구(10.8%)와 대학원 이상 독신가구(5.6%)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졸 독신가구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대한 대출관리 및 관련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연령별, 성별, 학력별 독신가구의 자산관리 및 노후경제준비

(명, %)

구 분		전체 가구		30대 가구		40대 가구		남성 가구		여성 가구		고졸 가구		대졸 가구		대학원 이상 가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자 산 관 리	자신 직접	141	88.1	111	90.3	30	81.1	69	88.5	72	87.8	10	83.3	92	92.9	39	79.6
	가족인	12	7.5	9	7.3	3	8.1	7	9.0	5	6.1	1	8.3	5	5.1	6	12.2
	금융기관	3	1.9	1	0.8	2	5.4	0	0	3	3.7	1	8.3	0	0	2	4.1
	관리양함	3	1.9	1	0.8	2	5.4	1	1.3	2	2.4	0	0	1	1.0	2	4.1
	해당사항 없음	1	0.6	1	0.8	0	0	1	1.3	0	0	0	0	1	1.0	0	0
	계	160	100.0	123	100.0	37	100.0	78	100.0	82	100.0	12	100.0	99	100.0	49	100.0
노 후 경 제 준 비	준비없음	18	11.3	14	11.4	4	10.8	6	7.7	12	14.6	0	0	10	10.1	8	16.3
	보험	31	19.4	21	17.1	10	27.0	14	17.9	17	20.7	2	16.7	19	19.2	10	20.4
	예금	29	18.1	22	17.9	7	18.9	13	16.7	16	19.5	4	33.3	18	18.2	7	14.3
	적금	52	32.5	43	35.0	9	24.3	26	33.3	26	31.7	3	25.0	34	34.3	15	30.6
	주식	7	4.4	7	5.7	0	0	6	7.7	1	1.2	1	8.3	6	6.1	0	0
	부동산	2	1.3	0	0	2	5.4	1	1.3	1	1.2	0	0	0	0	2	4.1
	연금	21	13.1	16	13.0	5	13.5	12	15.4	9	11.0	2	16.7	12	12.1	7	14.3
	계	160	100.0	123	100.0	37	100.0	78	100.0	82	100.0	12	100.0	99	100.0	49	100.0

자산관리는 조사대상 독신가구 대부분(88.1%)이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는 극히 미약하였다(<표 6> 참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개인 자산관리에 대한 우리 나라에서의 재무교육 수준과 우리의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이른 시기에서부터 재무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령별 경향을 보면, 약간의 차이이기는 하나 30대 독신가구는 90.3%가 자신이 직접 자

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40대 독신가구(81.1%)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40대 독신가구는 8.1%가 가족원, 5.4%가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는 것으로 30대 독신가구(7.3%, 0.8%)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들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자산을 관리하지 않는 비율도 40대 독신가구(5.4%)가 30대 독신가구(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30대에 비해 40대 독신가구의 경제상태를 생각해볼 때 40대 독신가구에 대한 재무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성별 경향을 보면, 남성 독신가구는 88.5%가 자신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여성 독신가구(87.8%)에 비해 그 비율이 약간 높은 경향이었고, 남성 독신가구는 9.0%로 여성 독신가구(6.1%)에 비해 가족원에게 자산관리를 맡기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여성가구는 3.7%가 금융기관에 자산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남성 독신가구(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후의 경제준비는 조사대상 독신가구의 11.3%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준비없음은 30대 독신가구(11.4%)가 40대 독신가구(10.8%)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40대에 비해 30대의 현재 소비지향적 성향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후를 위한 경제준비방법은 조사대상 독신가구의 32.5%가 적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험, 예금, 연금의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보험권보다는 은행권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연령별 경향을 보면, 30대 독신가구는 35.0%로 적금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40대 독신가구(24.3%)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40대 독신가구는 27.0%로 보험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30대 독신가구(17.1%)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주식과 부동산의 경우는 30대와 40대가 대조적인 선호경향을 보여, 30대 독신가구는 주식, 40대 독신가구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 경향을 보면, 여성 독신가구(33.3%)는 남성 독신가구(31.7%)에 비해 보험의 방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에 남성 독신가구(20.7%)는 여성 독신가구(17.9%)에 비해 적금의 방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경향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보험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여 대학원 이상 독신가구가 가장 많이 보험을 이용하였다. 반면에 학력이 낮을수록 예금을 이용하여 노후경제를 준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졸 독신가구(33.3%), 대졸

독신가구(18.2%), 대학원 이상 독신가구(18.2%)의 순이었다.

3. 독신가구의 소비지출

소비지출 규모의 대리변수로 측정된 월평균 생활비는 조사대상 독신가구의 47.5%가 50만원 - 100만원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30%가 50만원 미만의 월평균 생활비 수준이었다(<표 7> 참조). 이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통계청, 2002)의 결과에서 보여준 2인 이상 가구 평균소비지출 1,600,580원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 경향을 보면, 30대 독신가구는 52.0%가 50 - 100만원 미만, 40대 독신가구는 35.1%가 100 - 150만원 미만으로 가장 많았다. 30대와 40대 독신가구를 비교하여 보면, 30대 독신가구는 86.1%가 100만원 미만으로 40대 독신가구(48.6%)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40대 독신가구는 45.9%가 100 - 200만원 미만으로 30대 독신가구(13.0%)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경향이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30대 독신가구보다 40대 독신가구의 소비지출 규모가 더 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활비의 차이는 실질적 소득규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소득과 소비지출의 정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성별 경향을 보면, 남성 독신가구는 56.4%가 50 - 100만원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여성 독신가구(39.0%)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한편 여성 독신가구는 5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 수준에서 남성 독신가구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가계의 소비지출은 소득에 정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독신가구의 소득규모에서 보여준 여성 독신가구가 남성 독신가구에 비해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우위에 있는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학력별 경향을 보면, 50만원 미만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 반면에 100만원 미만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한편 50 - 100만원 미만은 대졸 독신가구가 고졸 독신가구나 대학원 이상의 독신가구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50만원 이상은 대졸독신가구가 고졸 독신가구나 대학원 이상 독신가구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비지출패턴은 조사대상 독신가구의 19.4%가 외식비에 가장 많은 비중을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그 다음으로 교양·오락·교제비(16.9%), 의복 및 신발비(15.0%)였다. 2인 가구와 비교하여 볼 때, 식료품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외식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독신가구의 경우 아침은 거르는 경우(58.5%)가 많았으며 저녁의 경우도 직접 준비하는 경우가 조사대상 독신가구의 27%정도인 것으로 식료

품비에 비해 외식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양·오락·교제비, 의복 및 신발비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는 점도 독신으로서의 개인적인 삶을 중요시하는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 경향을 보면, 30대 독신가구와 40대 독신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이 다름을 보여 주었다. 30대 독신가구는 22.8%가 외식비가 가장 할당비중이 높은 것으로, 40대 독신가구(8.1%)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외식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40대 독신가구는 24.3%가 의복 및 신발에 대한 지출을 가장 많이 할당하는 것으로 30대 독신가구(12.2%)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령별, 성별, 학력별 독신가구의 소비지출

구 분		전체 가구		30대 가구		40대 가구		남성 가구		여성 가구		고졸 가구		대졸 가구		대학원 이상 가구	
월평균 생활비	50만원 미만	48	30.0	42	34.1	6	16.2	22	28.2	26	31.7	6	50.0	32	32.3	10	20.4
	50~100만원 미만	76	47.5	64	52.0	12	32.4	44	56.4	32	39.0	5	41.7	52	52.5	19	38.8
	100~150만원 미만	28	17.5	15	12.2	13	35.1	10	12.8	18	22.0	0	0	11	11.1	17	34.7
	150~200만원 미만	5	3.1	1	0.8	4	10.8	1	1.3	4	4.9	0	0	4	4.0	1	2.0
	200~250만원 미만	1	0.6	1	0.8	0	0	0	0	1	1.2	0	0	0	0	1	2.0
	250만원 이상	2	1.3	0	0	2	5.4	1	1.3	1	1.2	1	8.3	0	0	1	2.0
	계	160	100.0	123	100.0	37	100.0	78	100.0	82	100.0	12	100.0	99	100.0	49	100.0
소비 지출 패턴	식료품	21	13.1	17	13.8	4	10.8	10	12.8	11	13.4	0	0	13	13.1	8	16.3
	외식비	31	19.4	28	22.8	3	8.1	22	28.2	9	11.0	2	16.7	22	22.2	7	14.3
	의복 및 신발	24	15.0	15	12.2	9	24.3	2	2.6	22	26.8	1	8.3	12	12.1	11	22.4
	주거	15	9.4	13	10.6	2	5.4	7	9.0	8	9.8	2	16.7	9	9.1	4	8.2
	광열·수도	1	0.6	0	0	1	2.7	0	0	1	1.2	1	8.3	0	0	0	0
	보건의료	1	0.6	0	0	1	2.7	0	0	1	1.2	0	0	0	0	1	2.0
	교통	13	8.1	11	8.9	2	5.4	9	11.5	4	4.9	2	16.7	7	7.1	4	8.2
	가구용품 및 집기	1	0.6	0	0	1	2.7	0	0	1	1.2	1	8.3	0	0	0	0
	교육	21	13.1	16	13.0	5	13.5	6	7.7	15	18.3	1	8.3	16	16.2	4	8.2
	교양·오락·교제	27	16.9	21	17.1	6	16.2	19	24.4	8	9.8	2	16.7	15	15.2	10	20.4
	통신	5	3.1	2	1.6	3	8.1	3	3.8	1	2.4	0	0	5	5.1	0	0
	계	160	100.0	123	100.0	37	100.0	78	100.0	82	100.0	12	100.0	99	100.0	49	100.0

성별 경향을 보면, 남성 독신가구는 28.2%가 외식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할당하는 것으로 여성 독신가구(11.0%)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에 약간의 차이기는 하지만 식료품비는 여성 독신가구가 남성 독신가구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남성 독신가구와 여성 독신가구의 외식비와 식료품비의 비중 차이는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한 본 연구의 조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여성 독신에 비해 남성 독신이 매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으로 외식비가 남성의 경우 상대

적으로 더 많으며, 여성 독신은 남성 독신에 비해 직접 준비가 더 많은 경향으로 식료품비의 지출 할당이 여성 독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성 독신가구는 26.8%가 의복 및 신발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할당하는 것으로 남성 독신가구(2.6%)에 비해 그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의복이나 신발에 대한 성별 관심 및 구매정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한가지 대조되는 것으로 남성 독신가구는 24.4%가 교양·오락·교제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할당하는 것으로 여성 독신가구(9.8%)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면에 여성 독신가구는 18.3%가 교육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할당하는 것으로 남성 독신가구(7.7%)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독신가구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교양·오락·교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력별 경향을 보면, 의복 및 신발비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 할당비중 가장 많다는 경향이 높았다. 한편 주거비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 할당비중이 가장 많다는 경향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신으로 살아가기에 전반적으로 소비생활이 어떠한가의 질문은 전체 조사 대상 독신가구의 45%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불편하다는 31.8%, 편리하다는 26.3%로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많았다(<표 8> 참조).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독신보다는 2인 이상의 가족 단위로의 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그 원인이 아닌가 여겨진다.

〈표 8〉 연령별, 성별, 학력별 독신가구의 소비생활 전반의 편리성

(명, %)

구 분		전체 가구		30대 가구		40대 가구		남성 가구		여성 가구		고졸 가구		대졸 가구		대학원 이상 가구	
소비 생활 전반	매우 불편	4	2.5	4	3.3	0	0	3	3.8	1	1.2	0	0	1	1.0	3	6.1
	다소 불편	42	26.3	35	28.5	7	18.9	17	21.8	25	30.5	2	16.7	24	24.2	16	32.7
	그러 그러함	72	45.0	56	45.5	16	43.2	36	46.2	36	43.9	6	50.0	48	48.5	18	36.7
	다소 편리	38	23.8	27	22.0	11	29.7	19	24.4	19	23.2	3	25.0	24	24.2	11	22.4
	매우 편리	4	2.5	7	0.8	3	8.1	3	3.8	1	1.2	1	8.3	2	2.0	1	2.0
	계	160	100.0	123	100.0	37	100.0	78	100.0	82	100.0	12	100.0	99	100.0	49	100.0

연령별 경향을 보면, 30대 독신가구는 31.8%가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으로 40대 독신가구(18.9%)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반면에 40대는 37.8%가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으로 30대(22.8%)보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별 경향을 보면, 남성 독신가구는 25.6%가 편리하다는 인식으로 여성 독신가구

(24.4%)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고 하는 경향이 약간 많았으며 불편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독신가구의 증가를 예측 가능케 한다.

학력별 경향을 보면, 대학원 이상 가구는 32.7%가 다소 불편하다로 다른 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반면, 고졸 가구는 25.0%가 다소 편리하다로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불편함과 편리함을 비교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불편하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편리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V. 결론 및 제언

독신가구, 그 경제생활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독신가구의 경제생활 실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작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규모는 30대 독신가구가 40대 독신가구보다 작았다. 여성 독신가구는 남성 독신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규모가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에 많았다. 대학원 이상 고학력 가구가 가장 낮은 소득규모에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규모에서 대졸 독신가구는 고졸 독신가구와 대학원 이상 독신가구보다 적어 대졸 독신가구의 저소득 특성을 보였다. 소득충분정도에 관한 주관적 인식은 46.5%가 그저 그렇다고 하였고, 22%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둘째, 저축률은 다소 적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저축이 많아 40대 독신가구가 30대 독신가구보다 저축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채는 40대 독신가구가 30대 독신가구에 비해, 남성 독신가구가 여성 독신가구에 비해, 고졸 독신가구가 대졸 독신가구와 대학원 이상 독신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를 지는 비율이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독신가구는 주택마련비용과 카드과다사용으로 인해 부채를 지는 경향이 많았다. 30대 독신가구, 남성독신가구는 카드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산관리는 대부분이 직접 관리하는 경향이였다. 노후경제 준비 방법은 전반적으로 은행권 이용이 보험권 이용보다 많았다.

셋째, 월평균 생활비는 40대 독신가구는 30대 독신가구보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 독신가구는 남성 독신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은 정도의 생활비가 많았다. 남성 독신가구는 중간 정도의 생활비가 가장 많았다. 고졸 독신가구는 100만원 미만인 가장 많았다. 소비지출패턴은 외식비에 지출할당이 가장 크다는 독신가구가 가장 많

왔고, 교양·오락·교제비, 의복 및 신발비의 순으로 지출할당이 크다는 독신가구의 비율이 많았다. 30대 독신가구는 40대 독신가구에 비해, 남성 독신가구는 여성 독신가구에 비해 외식비의 할당비중이 크다는 비율이 많았고, 여성 독신가구는 남성 독신가구에 비해 의복 및 신발비의 할당비중이 크다는 비율이 많았다.

넷째, 전반적인 소비생활의 편리성은 편리하다보다는 그저 그렇다와 불편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본 연구의 조사대상 독신가구의 소득규모 결과를 토대로 유추하여 보면, 30대 남성 독신가구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며 40대 여성 독신가구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개인적 능력에 의한 경제적 독립은 특히 여성의 경우 독신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지속적인 독신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반면에 남성 독신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독신의 삶을 살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소득은 학력과 일반적으로 정적 관련이 있지만, 특히 고학력 남성의 경우 사회적 지위, 체면 등 심리적 요인과 함께 직장선택의 제한된 폭으로 인한 비취업 현상은 고학력 남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며 이는 독신생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결혼을 연기하는 만혼의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가계에 의한 저축이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그 의미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저축행동 분석결과 비교적 낮은 저축율은 독신가구에 대한 저축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채유무와 부채이유에 관한 분석결과는 특히 30대 남성 독신가구에 대한 주의를 시사한다. 최근 증가하는 신용카드에 의한 부채는 부채상환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나아가 개인파산으로까지 이어짐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경제 및 경제의식 교육과 더불어 재무관리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대부분의 독신가구가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후경제 준비 방법으로 은행권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에 비추어 문제는 우리나라 은행권의 현 금리상황에 비추어 볼 때, 노후보장을 위한 금리대책이 있어야 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위험분산주의 원칙을 이용한 재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으로 저축 및 부채, 자산관리 주체 및 노후경제생활준비 방법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언할 수 있다. 하나는 미시적 측면으로 개인에 대한 재무교육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Personal finance의 내용을 이른 시기부터 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어 줌으로서 현재 자신의 소득과 지출 및 나아가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의 경제를 스스로 준비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자원의 합리적 계획, 관리 및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생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거시적 측면에서 노후경제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정부의 금융대책과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의 금융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독신가구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외식산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시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접 음식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매식을 하는 비율을 살펴볼 때 독신으로서 소홀하기 쉬운 건강을 추구하는 건강식, 아침 식사 등을 위해 집으로 배달될 수 있는 외식산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교양·오락·교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독신계층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아직은 가족 중심의 소비생활 환경임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독신가구 역시 사회의 한 가구형태로서 편리한 소비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소비환경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독신가구에 적합한 크기로 상품화하고 판매하는 것, 독신을 위한 레저상품 판매 등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독신가구의 경제생활 실상을 보는 기초적인 작업이었으며, 기술적인 방법에 의한 경향 분석정도에 머물렀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단순한 접근은 그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시대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2001 연
구보고서 240-10, 한국여성개발원.

선우정·박용근(2002), 신용카드남발, 조선일보.

여윤경·양세정(2001),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12(4),
65-82.

이승신·김기욱·김경자·심영·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학지사.

통계청(1998),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2002), 2002년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요약본.